

# 50년 만에 가장 더웠던 3월달...비는 8번째로 적게 내려

### 전달 9.4도 관측 1위...일조시간도 길어 3월에 4월하순 날씨...봄꽃 개화도 빨라 강수량 28.7mm 절반 꼴...비 3.6일 내려 고기압 발달에 맑은 날씨 이어져 기온 ↑

지난 3월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기온이 높았던 반면 비는 역대 8번째로 적게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덥고 건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기상청이 발표한 '3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9.4도로 평년보다 3.3도 높았다. 이는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5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직전 2021년(8.7도) 같은 달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3월 일조시간은 평년보다 34.6시간 많은 237.7시간으로 역대 5위, 일교차는 평년보다 2.2도 벌어진 13.9도로 1위였다.

이는 대륙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매우 약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

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달 7~11일에는 중국 내륙의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7~9도 올라 4월 하순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중부지방, 31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월 일최고기온 극값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온이 오르며 봄꽃 개화도 일제히 앞당겨졌다. 부산, 대전, 청주 등 일부 주요도시는 관측이래 벚꽃이 가장 빨리 개화했고, 서울도 지난 2021년(3월24일) 다음으로 빠른 지난달 25일 벚꽃이 폈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는 적게 내렸다. 대체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가운데 비를 부르는 저기압은 3월 상순에는 주로 우

리나라 북쪽, 중하순에는 남쪽으로 지나며 강수량이 적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28.7mm로 평년(66.5mm)의 50.8%로 절반을 가깝스로 넘는 수준이었다.

3월 강수일수도 평년보다 4.3일 적은 3.6일로 관측이래 최하위를 기록했고, 상대습도는 평년보다 5%포인트 낮은 55%로 하위 7위였다.

지난달 12일에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지만 저기압이 활성화되지 않아 강수량이 많지 않았고, 그달 22~26일은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오는 데 그쳤다.

3월에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원인은 결국 기온 상승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라시아 전역에 고기압의 발달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면이 가열돼 기온이 올라간 것이다.

지난달 열대 인도양과 서태평양에서 평년보다 대류활동(상승기류)이 강해 북쪽의 중앙아시아~동아시아 지역에 하강기류가 형성되며 폭넓게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했다.



이로 인해 대륙의 기온이 오르면서 시베리아고기압은 평년보다 매우 약해지며 빠르게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됐고, 이 발달된 이동성고기압과 기압능이 우리나라 쪽에 주로 자리하게 됐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동서방향으로 기압능과 고기압이 발달해 저기압은 주로 우리나라의 북쪽과 남쪽으로 통과했다"며 "이로 인해 강수량과 강수일수가 적었다"고 했다.

최이슬기자



'비가 와도 기념사진은 못 참지'

비가 내린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여행객들이 우산을 내려놓은 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배우 김새론, 1심 벌금 2천만원 선고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 선고를 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A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김씨는 생활고 호소가 거지 아니하는 논란에 대해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다"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선고에 앞서 법정에 10분가량 일찍 도착한 김씨는 다른 사건의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전방을 주시하거나 고개를 숙였고, 자신의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두 손 모아 경청했다.

이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선고가 끝난 후 이 판사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고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최소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억울하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기사가 나와서 그냥 딱히 뭐라고 해명을 할 수 없다. 무서워서"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당시 신사동 등 일대가 약 4시간30분 동안 정전되며 주변 상권까지 피해를 입었고, 김씨 측은 피해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김씨는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해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